



이 일 주 |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y2360@hanmail.net)

# 유구천의 역사와 문화

모든 인류 문화와 역사는 물이 흐르는 강(江)이나 천(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강은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며, 천은 “내라는 뜻을 가진 한자 접미사로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를 뜻한다(<http://krdic.daum.net/dickr/search.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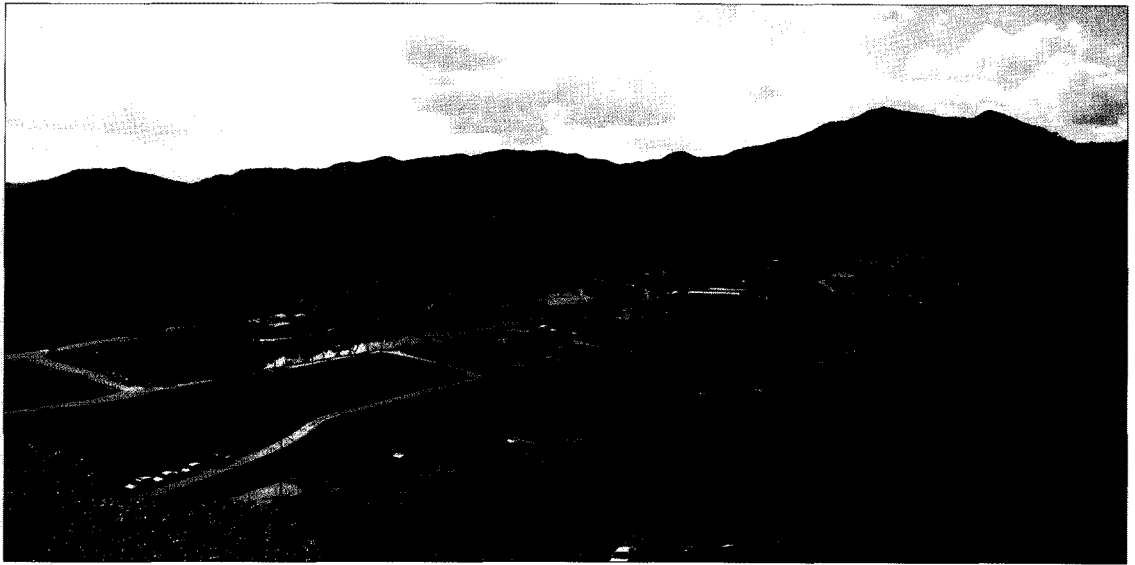
공주를 천혜의 땅이라고 일컫는 것도 금강과 무관하지 않으며, 공주 석장리에서 구석기 문화가 발굴됨으로써 공주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50여 만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것도 도도히 흐르는 금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주를 있게 한 곰나루의 전설도 금강에 기원하며, 475년에 백제의 문주왕이 공주로 천도하여 무령왕시대에 화려한 대백제의 문화를 꽃피운 것도 금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일 것이다.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1.5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주(940.36km<sup>2</sup>)는 국가하천 1개소(34.4km), 지방하천 92개소(416.27km)가 있어 전국 25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3,882개소의 평균 하천 수(15.3개소)보다 6.1배나 많은 지역이다.

## 1. 유구의 역사와 유래

유구는 현재 공주시에 편입되어 있는 읍(邑)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구는 일찍이 백제시대 때 벌음지현(伐音支縣)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구는 신라 때 청음현(淸音縣)에 속하였고, 고려 때는 공주목(公州牧)의 영현(領縣)인 신평현(新豐縣)에 속하였으며 남도지방에서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가는 길이 트여 유구역(維鳩驛)이 설치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신평현에 속하였다가 1750년 면리(面里)가 정착되면서 신평현이 신상면(新上面)과 신하면(新下面)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때 유구가 신평면의 위쪽에 있다고 하여 신상면이라고 하였다가 1942년에 신상면을 유구역에서 이름을 따서 유구면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1995년 3월에 유구읍으로 승격되었다(공주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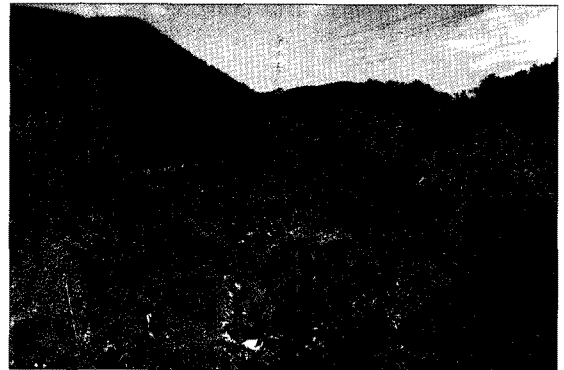
한편 이 지역을 ‘유구(維鳩)’라고 부른 연유는 조선시대 임진란과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이 이 땅에 진군했다가 유구의 지세가 큰 나라도 위협할 장군이 출생할 형세임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유구리 뒷산을 끊었는데 이때 땅속에서 세 마리의 금빛 비둘기가 피를 흘리며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군졸들이 죽



〈그림 1〉 유구정수장에서 본 유구읍 전경

어가 인근 고승을 찾아가 치유방법을 묻자 이곳 지명을 유구로 고쳐 부르라고 했다는 유래가 있다(<http://www.gongju.go.kr/cafe/yugu/>).

행정 32개리로 구성된 유구는 유구천의 발원지인 봉수산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예산과 접해 있는 영우산, 차동고개, 장학산, 천종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맥과 오른쪽으로는 유구에서 아산을 넘어가는 각흘고개에서 마곡사의 배산인 태화산으로 내려가는 산맥의 가운데 대부분의 마을이 유구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2〉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

## 2. 유구천의 발원지

유구천의 발원지는 봉수산이다. 유구에서 아산으로 가다 보면 각흘고개(角屹峙)가 나오는데, 이 고개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문금리를 지나면서 왼쪽으로 언덕을 넘어 들어가면 탐곡리라는 마을이 나온다.

언덕의 양쪽에 서있는 돌장승을 지나 깊은 산의 계곡을 따라 약 5km 정도 올라가면 봉수산으로 오르는 탐곡리 마을 끝 지점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약 600여m를 더 오르면 봉수산 계곡에서 물이 솟아 작은 내를 이루는 발원지가 나온다. 봉수산의 계곡이 깊고, 발원 수량이 꽤 많아 발원지의 바로 아



〈그림 3〉 발원지 아래 펼쳐진 들녘

봉수산 계곡에서 흐르는 발원 수(水)는 가뭄이 되면 마르기 때문에 봉수산 계곡이 발원지가 아니라 문금리 계곡에

발원지가 있다는 일부 현지인들의 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탐곡리 맨 위에 있는 탐산마을에 있는 웅달샘을 보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느티나무의 뿌리 아래에서 솟아나는 이 웅달샘은 제 아무리 가물어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하며, 발원지에서 물이 내려올 때는 웅달샘 물이 작은 듯이 보이지만, 가뭄이 심하게 들어 발원지의 물이 마를 때는 이 샘에서 나오는 물로 탐곡리 전체의 논농사를 지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보면 유구천의 발원 수(水)는 봉수산 중턱에 있는 '발원지'와 그 아래 탐산에서 솟아오르는 '발원 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림 4〉 유구천 발원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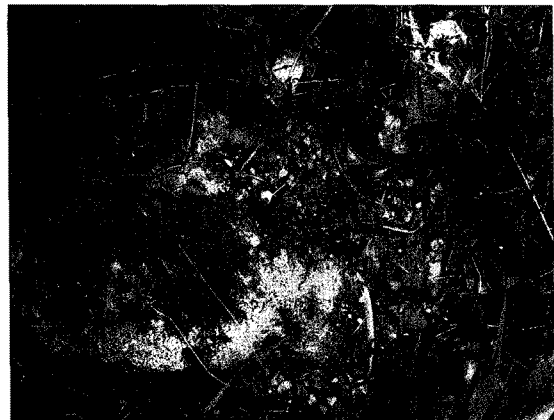
〈그림 5〉 불량담(佛糧齋)

탐곡리의 마을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유구천의 발원지에는 절이 먼저 들어 왔던 것 같다. 탐곡리에 있는 발원샘에서 언제부터 물이 솟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신라 중엽 까지도 탐곡리에는 인가(人家)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그 후 은서재(隱書齋), 절골, 절터 등 여러 곳에 절을 지으며 탐산리 한복판에는 큰 절을 지었다고 한다. 절 당당가에는 탑을 세우고 사중(寺中)들이 주변 지역의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불량담(佛糧齋)'이라는 논 이름이 전해 온다(김정수, 2008). 이와 같이 유구천 발원지인 탐곡리에는 신라 중엽 이후 여러 절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발원지에 세워진 가장 큰 절이 있었던 곳은 처음에는 '탑립(塔立)'이라고 불리다가 현재는 '탐산'이라고 하는 자연 마을의 김교창씨(성균관 전학) 댁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옥의 바로 옆 부근에 지금도 탑을 세웠던 기초석이 남아 있다. 한편 초기에 탐곡리에 들어와 있던 여러 절들은 마곡사로 편입되어 없어졌고, 그 자리에 인가들이 들어와 지금처럼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그림 6〉 탐곡리 유래를 설명하는 김교창씨



〈그림 7〉 탑의 기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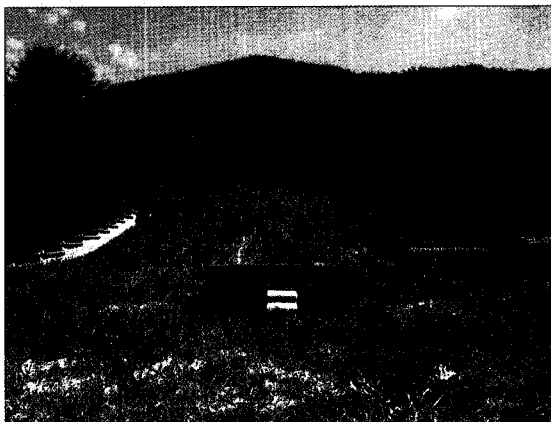
### 3. 고려충신의 혼이 잠든 유마지간(維麻之間)의 시작점 추동(秋洞)

유구천의 발원지인 탑곡리에서 흐르는 물이 문금리에서 내려오는 금천과 첫 번째로 합쳐지면서 하천 폭은 10여m로 커지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갑자기 30여m의 폭으로 넓어져 많은 물이 흘러 내려간다. 그런 한편으로 하천의 양 옆에 뻗어 내려가는 산맥의 험찬 모습과 빼어난 경치가 돋보인다.

여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가장 살기 좋은 10군데를 정하여 십승지(十勝地)를 정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혔던 ‘유마양수지간(維麻兩水之間)’의 살기 좋은 고장을 유구천과 그 주위 산세가 만들어 냈다. 그러한 유마지간의 시작점이 바로 유구천 상류에 있는 추계리 추동마을이다.

유구천 변 금계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추동에는 고려조 충신 충숙공 문극겸(文克兼)의 묘소가 있어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곳이다. 한편 마을 입구에 ‘고간원지(叩諫院止)’의 표지판을 통해서 볼 때 이곳은 옛적에 원(院)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이나 ‘공산지(公山誌, 1859, 철종 10년)’에 의하면 ‘고간원(叩諫院)’은 본래 ‘고관원(古館阮)’이었으나, 충숙공의 묘소가 있어 마을 이름도 고간동(叩諫洞)으로 불렸듯이 역시 원의 명칭도 그렇게 바뀌어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백원철, 2004).



〈그림 8〉 충숙공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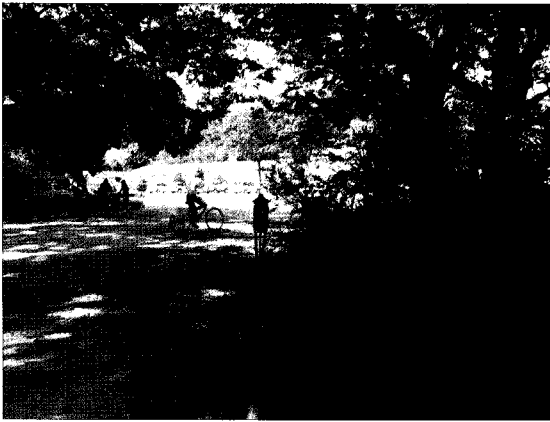
〈그림 9〉 고간원

### 4. 공연예술마을로 변모한 입석(立石)리

추계리에서 유구천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큰 길 오른쪽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이라는 표석을 볼 수 있다. 이 표석 옆에 있는 다리(입석교)에서 보면 유구천의 규모가 대단히 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 옛날에 세웠던 입석 터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입석초등학교가 폐교된 자리에 공연예술마을이 들어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곳에 한 때 학년당 2개 학급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구천변 입석리 주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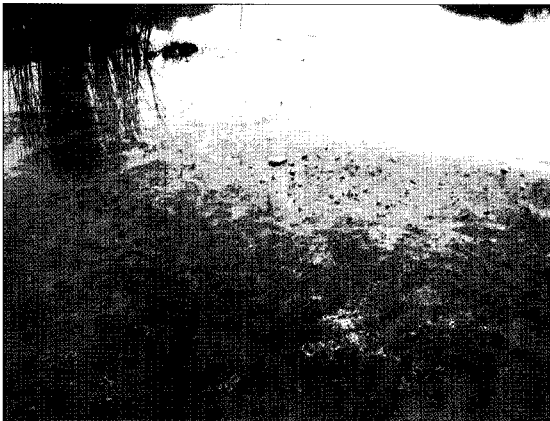
〈그림 10〉 입석리 유래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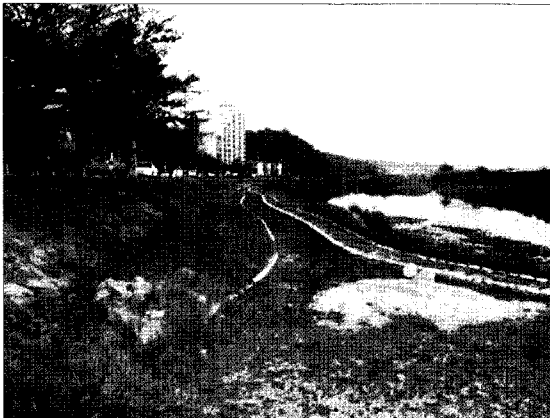
〈그림 11〉 공연예술마을

## 5. 다시 살아난 유구천

유구읍 소재지에서는 유구천이 읍의 중심지를 흐르기 전 석남교 위에 막은 보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하여 음용수로 활



〈그림 12〉 공사 전 수질상태(공주시, 2006)



〈그림 14〉 공사 초기 유구천(공주시 제공)

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질을 인위적으로 잘 관리하는 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유구천은 자연 상태의 물을 그대로 취수하여 정수한 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유구천은 맑고 깨끗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구 취수장을 지나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유구읍 석남리를 중심으로 유구천 양 옆으로 수많은 직조 공장이 들어서 있었고, 주민들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구천으로 흘러들어 유구읍 소재지를 지나면서 유구천의 수질은 극심하게 나빠졌다. 이러한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여러 해 전부터 유구천 살리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9월 웅진그룹과 환경재단, 공주시, 환경부가 유구천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때 웅진그룹과 환경재단에서는 하천 정화식물심기와 지역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공주시는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환경부는 예산 지원과 기술 자문을 맡기로 하였다(연합



〈그림 13〉 유구천가꾸기 협약식(공주시 제공)



〈그림 15〉 현재의 유구천

뉴스 보도자료, 2007. 4. 3).

이때부터 공주시의 '유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006. 9)'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구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공주시, 2006). 이런 노력과 함께 웅진그룹 등의 유구천 살리기 운동에 힘입어 약 3급수 이하로 오염되었던 유구교와 우마교 사이의 유구천이 고기 잡고 미역 감던 시절의 1급수 유구천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구천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자 유구읍 행정구역 내의 유구천에 국한했던 정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여 2010년 8월에는 379억원을 투입하여 유구읍 석남리에서 신풍면 동원리에 이르는 12km의 하천을 정화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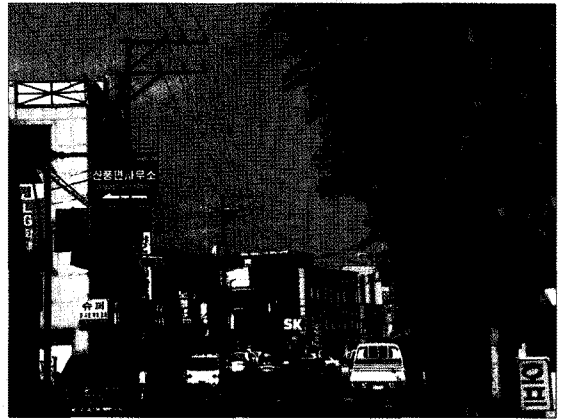
## 6. 벌음지현 치소를 있게 한 유구천

1급수로 되살아난 우마교 아래 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유구천을 따라 내려오면 지천인 백교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져서 유구천의 규모가 더욱 커진다. 약 120여m 정도의 하천폭이 비가 오면 범람할 정도로 많은 물이 내려간다. 이렇게 풍부한 물이 우렁이 마을로 유명한 만천리를 거쳐 백제시대 벌음지현의 치소를 두었던 신풍면 산정리와 동원리 사이를 흘러 내려가면서 넓은 들녘을 만들어 냈다.

산정리는 옛 신풍현의 치소를 두었던 곳이며, 신풍현은 백제의 벌음지현이 신라 경덕왕 때 청음현으로 바뀌었다가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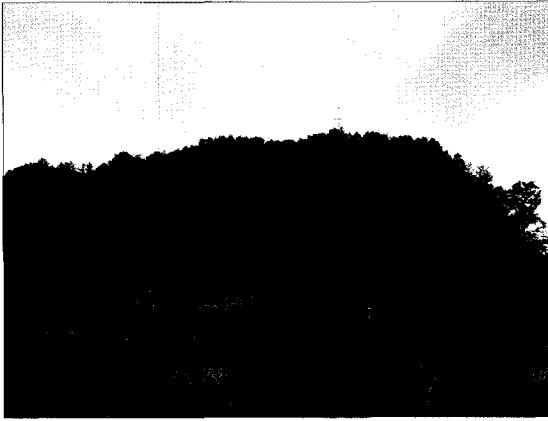
〈그림 16〉 우렁이 마을 만천리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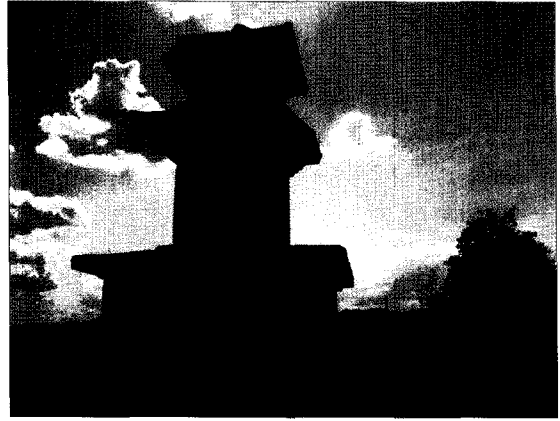
〈그림 17〉 신풍면소재지

경된 이름이므로 결국 산정리는 백제 때부터 현의 치소를 두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산정리는 북과 서, 그리고 남쪽이 모두 산지로 되어 있고, 동편만 평지인데 이는 유구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윤용혁, 2009). 1998년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 의하면 산정리 신풍산성과 산정리 오얏골 고분군이 백제시대 유적으로 조사되었다. 봉황산에 있는 신풍산성은 벌음지현의 중심 거점 석성으로 추측되는데, 둘레가 약 355m 정도 되는 석성이다. 북벽의 중간부분과 남벽에는 성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서벽의 안쪽에 10×30m 정도의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고,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굴러다니는 건물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백제시대 와편과 토기편이 많이 보이고 있어 마한~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신풍면지편찬위원회, 2005).

벌음지현 치소였던 산정리에서 동쪽으로 펼쳐진 들녘을 지나 동원교를 이용하여 유구천을 건너면 동원리가 나온다. 동원(東院)리에 가면 지금도 '원골', '향교골'이라는 지명을 부르고 있다. '원골'이라는 지명유래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 마을에 옛날 원님이 살았기 때문에 '원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던 역원이 있어서 '원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님이 살아서 원골이라고 하는 유래는 '지명총람'에 의해서도 밝혀진다. 여기에서 원골은 옛 신풍현이 있던 터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공주문화원, 1996). 원골에 가면 동원리의 역사를 알려 주려는 듯 3층 석탑이 많아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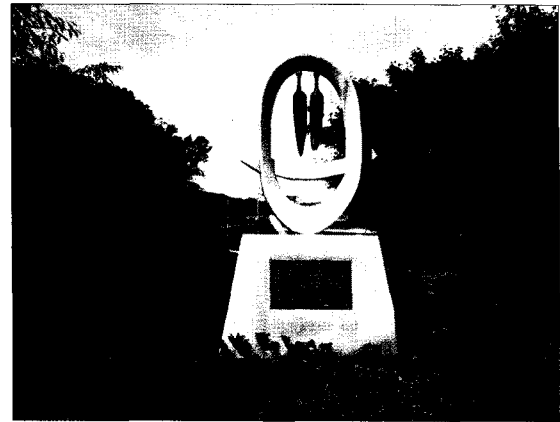
〈그림 18〉 신풍산성(남쪽)



〈그림 19〉 동원리 3층 석탑



〈그림 20〉 산정라-동원리 간 들녘



〈그림 21〉 신풍고추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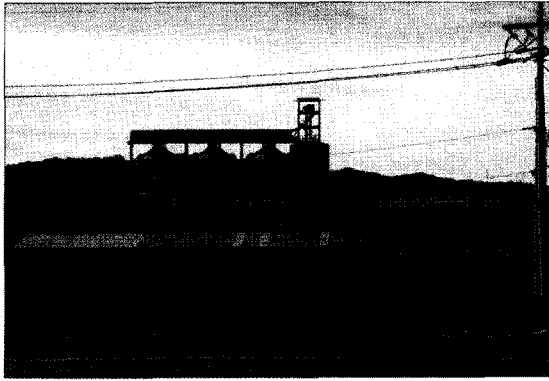
한편 신풍지역은 유구천이 흘러 내려가면서 기름진 넓은 들녘을 형성하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 유명한 것은 쌀과 풋고추이다. 신풍면소재지 바로 옆에 있는 백룡리 입구에서 있는 신풍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신풍고추 기념비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유구천과 합수되는 대룡천 변에 있는 대룡리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풋고추는 전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성수기에는 하루에 5톤 트럭으로 5대씩 출하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풍은 역사적으로 행정 중심지였고, 옥토에 풍부한 농산물이 많이 나와 예로부터 사람들이 후덕하다 보니 충절의 인물도 많이 배출하였다. 지금도 동원리에 가보면 열녀 김씨의 정려가 서 있고, 백룡리에는 성제공 효자 정려가 서있으며, 영정리에는 효자 이구상(李玖相)의 정문이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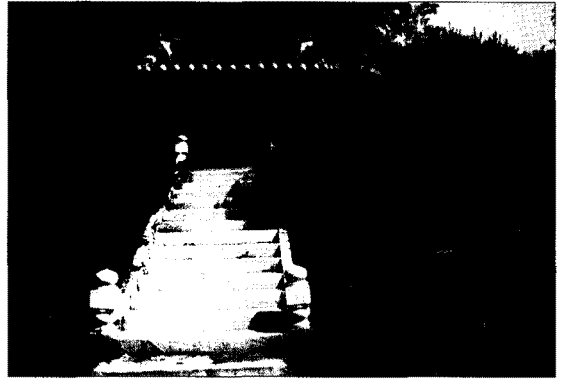
## 7. 고찰(古刹)의 서기(瑞氣)가 흐르는 1급하천

유구천이 옛 벌음지현 치소를 거쳐 영정리를 지나면 사곡면 해월리로 접어든다. 100m 길이의 해월교 하류부가 언제 정화되었는지 수질이 매우 좋다. 이 물을 담은 유구천이 바로 아래에 있는 호계리의 꽃보로 흘러들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낸다. 꽃보를 감싸고 있는 절벽 위 숲 속에는 화암정(花巖亭)이 서 있는데,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인 이 정자는 이곳이 100리를 흘러가는 유구천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여 1935년에 세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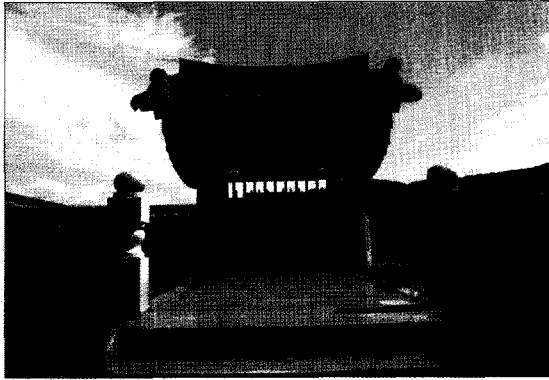
화암정에서 꽃보 건너편에 있는 호계리에는 애일당(愛日堂) 정분(鄭芬, ?~1454)의 충효 정려(공주시 향토문화유적 유형 제18호)와 유립들이 정분의 충효를 기리는 충효사, 그리고 고로서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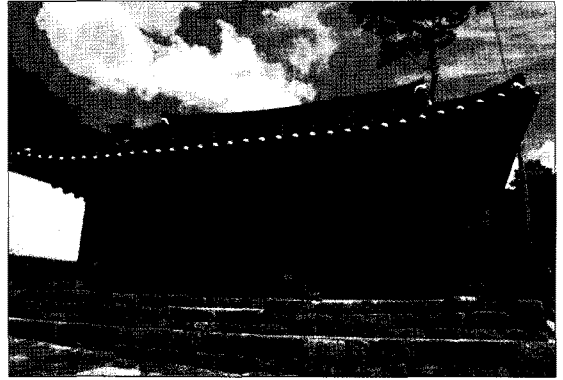
〈그림 22〉 신풍농협 미곡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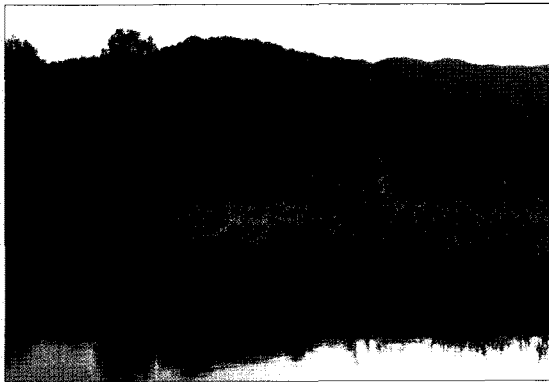
〈그림 23〉 열녀 김씨 정려(동원2리)



〈그림 24〉 성제공효자 정려(백룡리)



〈그림 25〉 여주이씨 효자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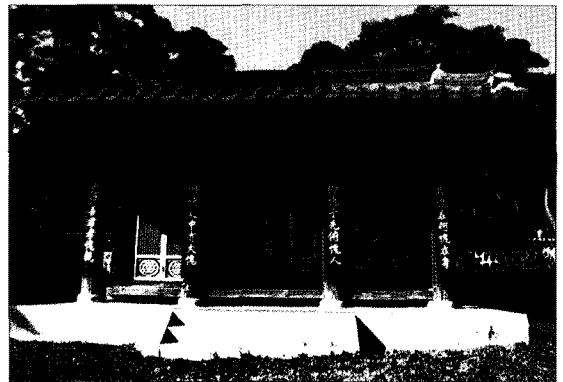
〈그림 26〉 사곡 꽃보



〈그림 27〉 화암정



〈그림 28〉 화암정에서 보는 유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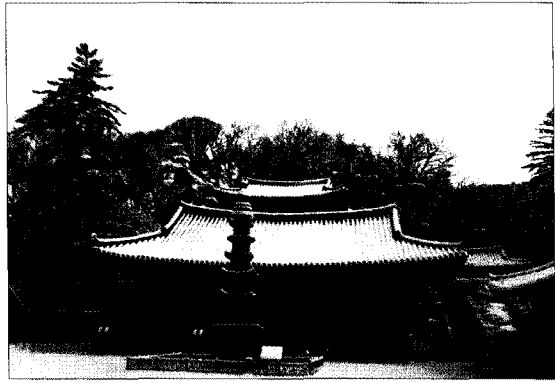


〈그림 29〉 충효사





〈그림 30〉 유구천으로 가는 마곡사 계곡물



〈그림 31〉 마곡사 설경

한편 꽃보 아래에는 사곡면소재지에서 마곡사로 가는 길을 연결하는 108m 길이의 봉화교가 있다. 이 다리 밑을 흐르는 유구천은 약 300여m를 지나서 마곡천과 합수되는데, 이때부터 유구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 변모한다. 유구천과 합수된 지천인 마곡천을 따라 올라가면 1,360년 전인 640년(신라 선덕여왕 9년) 태화산 아래에 창건된 마곡사(麻谷寺)가 자리를 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本寺)인 마곡사는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70여개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대찰(大刹)이다(사진 출처: [http://www.magoksa.or.kr/sub7\\_1.htm](http://www.magoksa.or.kr/sub7_1.htm)).

## 8.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금강으로 흘러드는 유구천

천년사찰 마곡사의 서기를 품은 유구천은 지방하천의 지위를 1급으로 높이고 사곡면 화월리의 코스모스 길을 옆으로 하고 도도히 흘러 내려가면서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낸다.

답사 길에 나섰을 때 화월보 옆으로 난 제방에 무수히 핀 코스모스 길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부모 손잡고 뛰어 놀며 사진 찍기에 바빴고, 젊은 남녀들이 화월보 아래 위에서 물장구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화월교보를 지나 유구천은 좁고 깊은 물 계곡을 만들어 내면서 급하게 흘러가고, 물 계곡 옆으로 넓게 만들어진 둔치 옆으로는 넓은 들녘이 만들어졌다. 유구천 위로는 수십m

높이의 거대한 교각 위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고속도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구천은 더욱 아름답다.

유구천이 사곡면 신영리로 들어오면서 신영천의 물을 받아 더욱 풍부한 수량으로 흘러 내려간다. 국제교(菊載橋)를 거치면서 멋진 경관을 연출하고, 이내 우성면 동대리와 경계하고 있는 통천보로 들어간다. 본래 동천보(銅川湫)였던 이름을 지금은 ‘통천보’ 또는 ‘통천포’라고 부르는데, 이 보는 유구천에 있는 수많은 보(湫)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같이 통천보를 형성하면서 흐르는 유구천이 인근 지형을 마치 섬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내는 곡선미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며, 둘째는 아무리 가물어도 절벽 밑 통천보에 담긴 물은 언제나 깊고 푸르러 아름답고, 셋째는 통천보의 이름이 지어진 배경과 통천보가 지니고 있는 전설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통천보의 원래 이름인 ‘동천보’는 우성면 동대리에 처음 들어온 보성 오씨 동천공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동천공 이후 1960년대까지 이 보의 물길 관리인인 일명 수감(水監)은 보성 오씨 문중에서 계속 맡았다고 한다(이결재, 2008).

한편 통천보는 산을 휘감아 돌면서 내려가면서 계속하여 옥도를 만들어 냈다. 그 땅 위에 심어서 생산하는 통천보 배는 매우 유명하며, 봄철 배꽃이 핀 통천보 경관은 무척 아름답다.

통천보를 흘러내린 유구천은 동대리에서 청양 방향의 길



〈그림 32〉 사곡 화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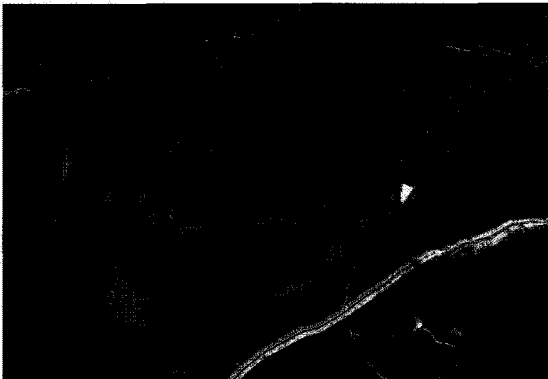
〈그림 33〉 고속도로 아래 유구천



〈그림 34〉 국제교 상류부 유구천 전경



〈그림 35〉 유구천 변 배밭



〈그림 36〉 통천보 위성사진(공주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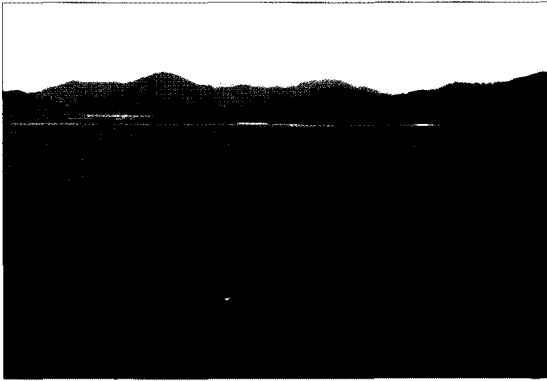
〈그림 37〉 위에서 본 통천보(공주시 제공)

을 연결하는 동대교 밑을 지나 왼쪽으로 광활한 들녘을 만들어 내면서 옥성리와 평목리 사이를 거쳐 35.5km 수계 여행을 마치고 금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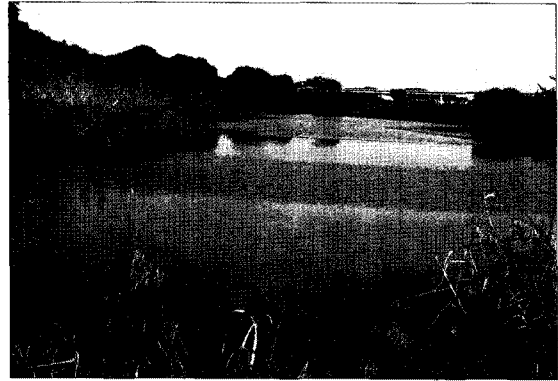
금강과 합수되는 유구천 하류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금강이 범람하여 유구천의 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됨에 따라 늘 상서리 들녘과 옥성리가 물에 잠기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 금 동대리와 옥성리 간 유구천 수변에 높은 독을 쌓고, 상

서리 들녘 하구에 배수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전답이 완전하게 옥답으로 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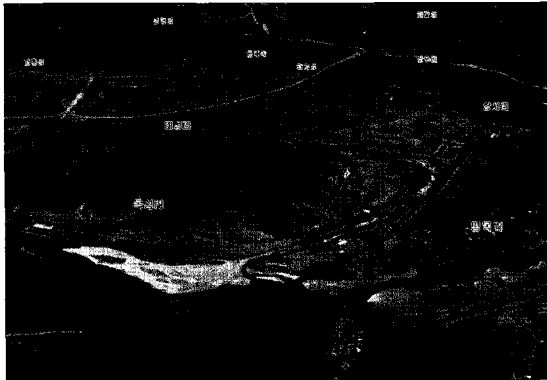
한편 유구천이 금강에 합수되는 지점 옆의 옥성리에는 옛날 노랭이 부자가 살았었다고 한다. 이 부자는 자기 옥심만 부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다가 결국 화를 당하여 대궐과 같았던 집이 연못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설이 어린 '장자뚝'이라는 자연 연못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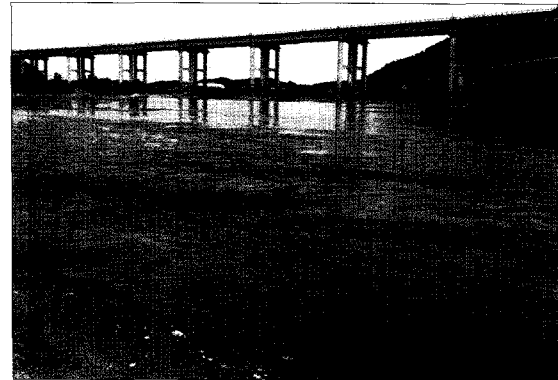
〈그림 38〉 유구천 하류의 들녘



〈그림 39〉 전설 어린 장자못



〈그림 40〉 금강 합수부 위성사진(공주시 제공)



〈그림 41〉 금강으로 들어가는 유구천

## 9. 유구천을 통하여 배우는 인생

유구천은 봉수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그마한 물줄기, 봉수산 아래 탐곡리라는 깊은 계곡에 형성된 마을 안에 있는 작은 웅달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발원이 된 국가하천이다. 수많은 지천의 물을 하나로 품어 가면서 점점 커져 거대한 모습으로 변하여 때로는 험한 모습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빼어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면서 100리길을 흐르는 유구천을 답사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이 물을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첫째, 물의 발원샘은 보잘 것 없이 작지만, 그 물의 끝은 창대하다는 점에서 영·유아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인생을 통하여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물이든 인생이든 자칫 한 번 오염되면 다시 정화하기 어렵다. 발원지의 물은 그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불과 얼마 내려오지 않고 본격적인 천(川)의 모습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수질이 오염되는 현상을 보면 어린 시기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셋째, 어떤 지류(支流)의 물을 만나 서로 합쳐지느냐가 수질이나 규모, 수변 지형을 변화시킨다. 인간도 어떤 부모, 어떤 이웃, 어떤 사회를 만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물이 스스로 흐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치와 같이 인간 뉘뉘이도 강요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태어나는 인간의 본성을 자발적으로 바람직하게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물은 잔잔하게 흐르는 지점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소용돌이치기도 하는 것처럼 인생도 어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여섯째, 험한 산악지대를 뚫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과 같이 신체·정신적 장애나 난과 고생을 극복해온 굴곡진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이 자연을 정화하는 것과 같이 늘 부지런하고 매일같이 새로 배우며 생활을 신선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물이 유

유히 흘러 드넓은 강과 바다로 들어가듯이, 송고한 인생도 수 많은 인류에게 화려한 희망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공주문화원(1996), 공주의 전통마을, 공주문화원.  
공주시(2006), 유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공주시.  
공주시시민봉사과(2007), 공주시 지명 변천 약사, 공주시.  
김정수(2008), 유구읍 탐곡리, 공주의 전통마을 7, 공주문화원.  
백원철(2004), 금계포란의 명당지 유구면 추계리, 공주의 전통마을 3, 공주문화원.  
신풍면지편찬위원회(2005), 신풍면지, 대전: 예일기획.  
우리조상뿌리찾기 편찬위원회(2009), 공주세거 남평문씨의 충숙공 문극겸의 사적, 공주문화원.  
윤용혁(2009), 백제 벌음지현의 치소 신풍면 산정리, 공주의 전통마을 8, 공주문화원.  
이걸재(2008), 통천보와 함께 한 역사 우성면 동대리, 공주의 전통마을 7, 공주문화원.  
<http://www.gongju.go.kr/cafe/yugu/>  
[http://www.magoksa.or.kr/sub7\\_1.htm](http://www.magoksa.or.kr/sub7_1.htm)

**도움을 주신 분들**

김교창씨(탐곡리 거주, 성균관 전학)  
심효섭씨(공주시청 재난관리과)  
이성기씨(유구읍 탐곡리 이장)